



## 하절기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I

이 희 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

현대는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동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주5일 근무제도의 확산과 웰빙(Well-Being)문화에 대한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레저와 여행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휴가의 계절, 여름을 맞이하여 긴장을 풀고 여유를 즐기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를 당하게 된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아본다.

### ◆ 물놀이 사고 시 응급처치법

흔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매스컴을 통하여 자주 듣게 된다. 모든 응급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구조자가 안전과 침착성을 절대 잃지 않는 것이다.

먼저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 몸에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며
  - 음주 후 또는 식사 직후의 물놀이는 매우 위험하다.
  - 호기심으로 혼자서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대부분 어른들의 사고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들의 사고는 어른들의 무관심에서 주로 발생한다.



### ◎ 익수자 구조요령



1.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2. 구조를 위해 무리한 행동은 절대하지 않는다.
3. 물에 뜨는 물체, 밧줄, 막대기를 이용한다.
4. 수영으로 구조시에는 반드시 익수자의 뒤쪽으로 접근한다.



### ◎ 응급처치

1. 체내의 물을 빼내  
느라 시간을 낭비  
하지 않는다.
2. 호흡정지 및 심정  
지시에는 즉시 심  
폐소생술을 실시  
해야 하며 심폐소  
생술 요령은 최초  
2회의 구조호흡과  
30회의 흉부압박  
(가슴 중앙부분)  
을 2분간 5주기  
로 119구급대가 현장  
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3. 무기력증, 마비, 사지감각이상을 호소하면 척추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젖은 옷은 제거해주고 담요로 보온해 주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요구되며,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여행 일정과 환경에 따라 간단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하겠다. 📞

